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다양한 가족 현황과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이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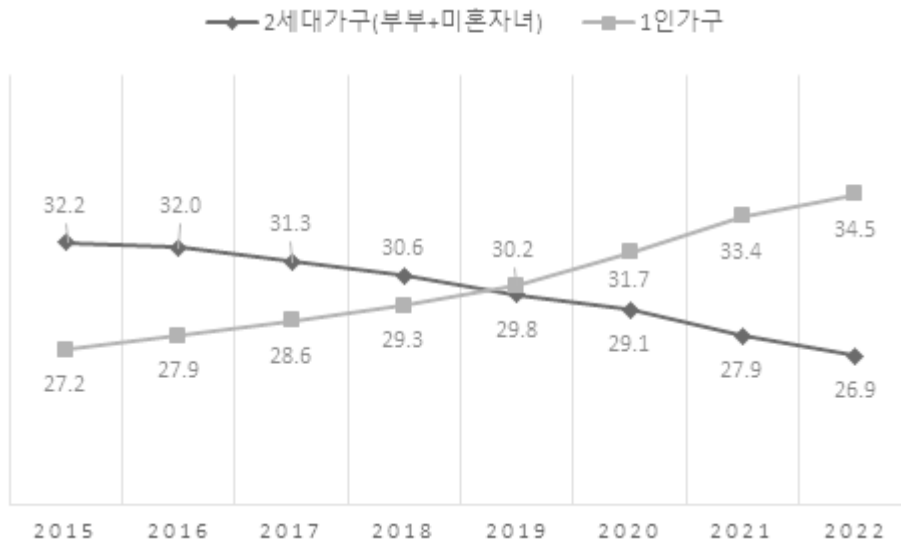
- 만혼과 비혼, 혼인해체, 비혼 출산, 국제결혼 등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과 함께 1인가구 및 다문화가구, 조손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또한 기존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인식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를 예견해 보고자 함.
-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인가구와 조손 가구, 다문화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부모 가구와 미혼모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와 조손 가구의 증가는 비혼과 혼인해체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이며,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의 증가는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외국인과 자녀 출생 증가의 결과로 확인됨.
- 가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가족을 경제적 생계 관계이자 공동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한 반면,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는 정도는 낮아지고 있음.
- 또한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법적 혼인관계 내에서 부부관계를 맺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기존의 가치관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의 동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남성이 국제결혼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서 남녀 모두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태도로의 변화 폭은 남성이 여성보다 커 남성의 국제결혼 및 혼인해체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점차 긍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식의 변화가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며 다문화 가구 및 1인가구, 조손 가구 등의 증가세로 확인되고 있음. 앞으로는 기존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라는 일반적인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열린 태도로의 인식 변화가 조율될 것으로 보임.

1. 가족 다양성 현황

□ 가족 다양성

- 가족의 대표적인 유형인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점차 감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가구가 등장함. 특히 1인가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부터 2세대 가구에 비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1인가구, 한부모 가구, 미혼모부 가구, 조손 가구, 다문화 가구와 같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가족의 모습을 예견해 보고자 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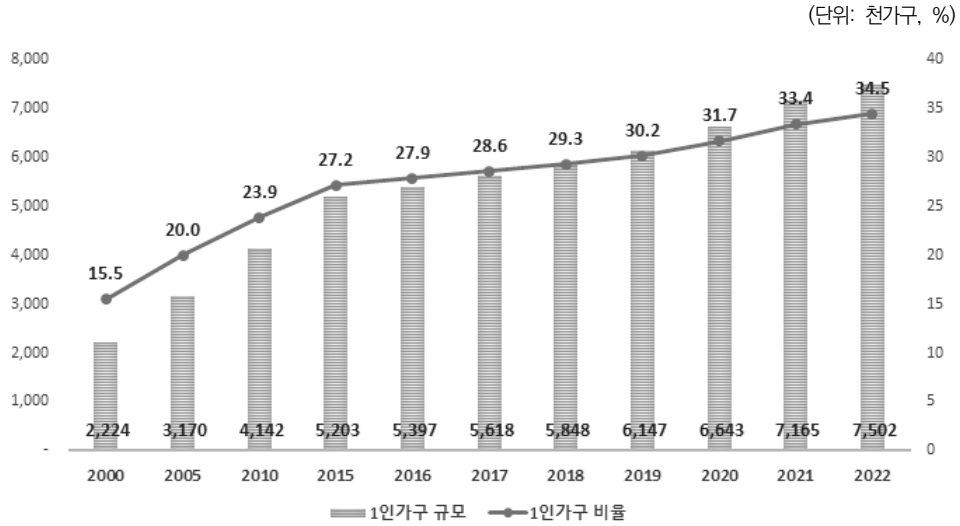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 2세대 가구 및 1인가구 비율(2015~2022)

□ 1인가구 현황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 규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하던 1인가구는 20년이 지난 후 31.7%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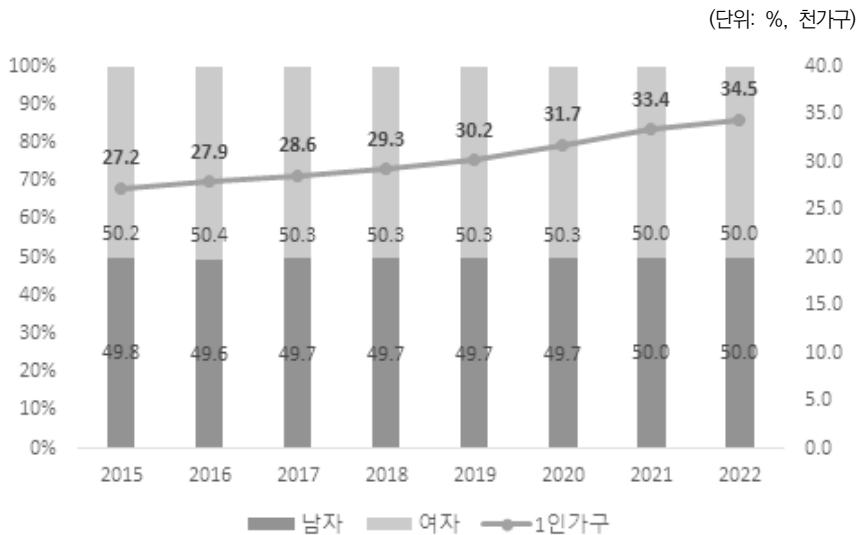


주: 1인가구 비율은 일반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2] 1인가구 비율(2000~2022)

-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1인가구 규모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녀 비중은 비슷한 가운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남자보다 여자 1인가구 비중이 근소하게 많았으나, 2021년부터는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되었음.



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3] 성별 1인가구 현황(2015~2022)

- 연령별로 1인가구 규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남자 1인가구가 여자보다 많고 20세 미만과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1인가구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5년 대비 2022년 증가 규모를 보면, 남녀 모두 60대 1인가구의 증가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였음.

〈표 1〉 성별 연령별 1인가구 규모(2015~2022)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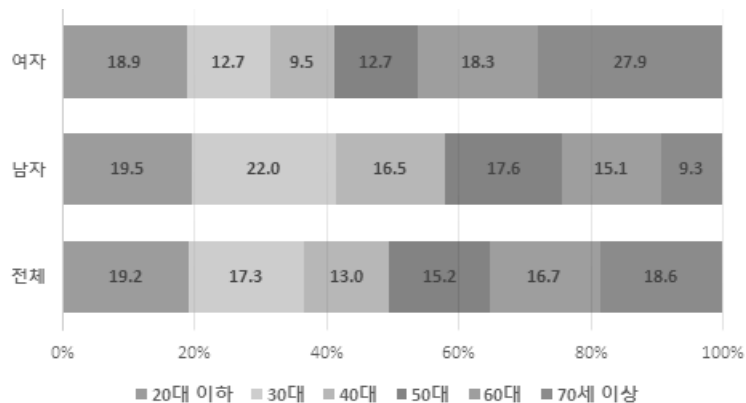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량 (2022-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미만	28	30	30	32	29	32	28	31	29	31	36	40	25	29	25	28	-3	-2
20대	485	402	504	426	517	444	543	477	587	531	650	617	699	665	707	679	223	277
30대	610	343	607	341	621	347	637	356	664	372	715	401	783	443	824	475	214	132
40대	542	308	532	311	545	318	546	318	550	322	572	332	604	347	619	358	77	50
50대	478	400	499	413	523	425	543	431	562	437	595	445	637	464	660	477	183	77
60대	262	407	298	445	332	473	367	503	398	534	451	588	521	655	565	687	304	281
70대	137	460	148	467	159	484	172	499	185	511	199	534	217	554	238	571	101	111
80세 이상	51	261	58	286	64	303	71	327	80	356	87	383	99	425	111	476	60	214
계	2,593	2,610	2,676	2,722	2,792	2,827	2,906	2,942	3,054	3,094	3,304	3,339	3,584	3,582	3,751	3,751	1,158	1,141

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 2022년 1인가구 규모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1인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20대 이하(19.2%)로 나타남. 그러나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자의 경우 70세 이상 집단에서 1인가구 비중이 27.9%로 가장 많았고, 남자는 30대가 2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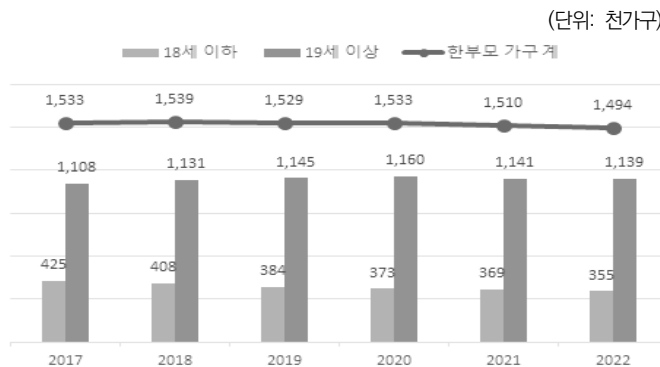
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13(접속일: 2024.06.05.)

〔그림 4〕 성별·연령별 1인가구 비율(2022)

□ 한부모 가구 현황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2017년 1,533천가구에서 2022년에는 1,494천가구로 39천가구 감소하였음.
- 자녀 연령별로 한부모 가구 규모를 비교해 보면, 자녀의 최소 연령이 19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가 18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구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2년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1,139천가구였으며,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355천가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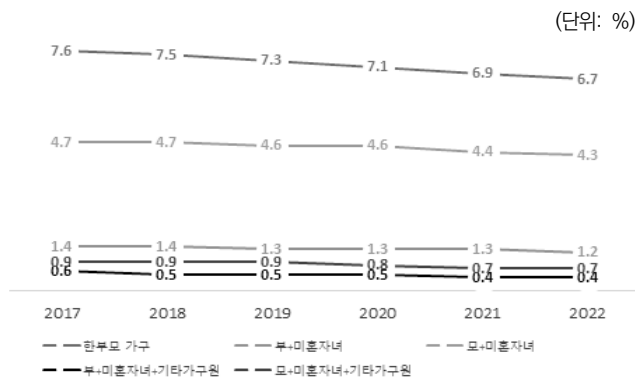


주: 18세 이하 및 19세 이상 구분은 자녀 중 최소 연령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12(접속일: 2024.06.04.)

[그림 5] 한부모 가구 규모(2017~2022)

-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2017년에는 7.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6.7%로 나타남. 한부모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구성은 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감소 추세임 (2017년 4.7%→2022년 4.3%).



주: 미혼자녀와 그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로 구성된 가구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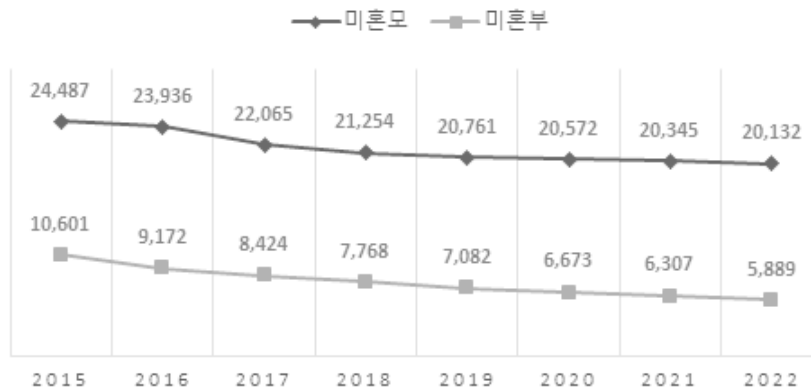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12(접속일: 2024.06.04.)

[그림 6] 한부모 가구 구성별 현황(2017~2022)

□ 미혼모부 현황

- 미혼모부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혼모가 미혼부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미혼부는 2015년 10,601명에서 2022년 5,88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미혼모의 경우 2015년 24,487명에서 2022년 20,132명으로 약 4천명 감소하였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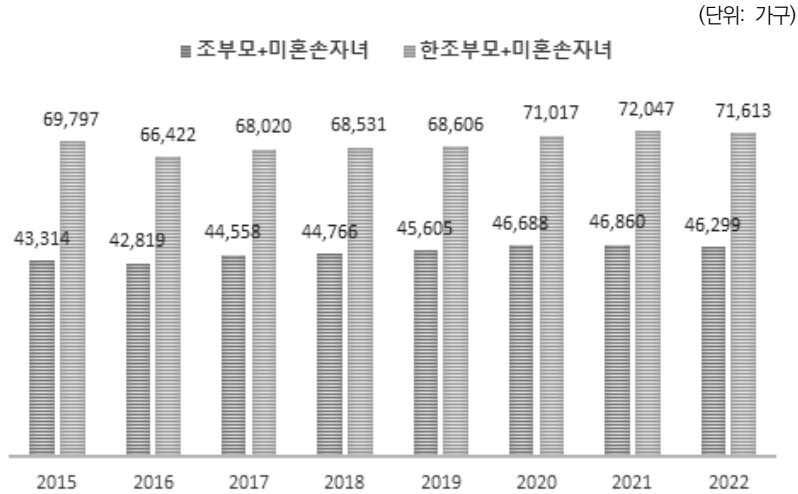
주: 미혼모·부의 개념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를 뜻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conn_path=I3(접속일: 2024.06.04.)

[그림 7] 미혼모·부 현황(2015~2022)

□ 조손 가구 현황

- 한부모 가구와 달리 조손 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세대 구성별로 살펴보면 한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 가구는 43,314가구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46,299가구가 집계되었으며, 한조부모와 미혼 손자녀 가구는 2015년 69,797가구에서 2022년 71,613가구가 집계되었음.



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517&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8】 조손 가구 현황(2015~2022)

□ 외국인 다문화 가구 현황

- 다문화 가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규모를 보면 2016년 316,067가구에서 2022년 399,396가구로 증가하였음. 다문화 가구원은 2016년 약 963천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151천명으로 약 188천명 증가하였음.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의 증가는 귀화 내국인 및 출생 내국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보임.
- 전체 가구원 중에서 출생으로 인한 내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귀화 내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기타 외국인 순임.
- 성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 가구원 중에서 여자 다문화 가구원이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귀화 내국인 및 결혼이민자 외국인에서 여자의 비중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출생 내국인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욱 많았음.

〈표 2〉 다문화 가구 현황

(단위: 가구, 명)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다문화 가구	316,067	318,917	334,856	353,803	367,775	385,219	399,396
다문화 가구원	963,174	963,801	1,008,520	1,062,423	1,093,228	1,119,267	1,151,004
남자	456,074	457,883	479,983	506,229	519,342	530,080	545,744
여자	507,100	505,918	528,537	556,194	573,886	589,187	605,260
내국인(출생)	595,050	588,968	617,785	649,864	678,973	690,716	707,291
남자	368,662	369,348	386,215	406,195	422,992	429,435	439,392
여자	226,388	219,620	231,570	243,669	255,981	261,281	267,899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내국인(귀화)	158,498	168,519	175,659	184,466	197,730	209,663	222,440
남자	32,381	34,284	36,099	37,123	40,280	42,934	45,512
여자	126,117	134,235	139,560	147,343	157,450	166,729	176,928
외국인(결혼이민자)	158,620	159,958	165,919	173,085	173,104	174,122	175,365
남자	28,484	30,502	32,509	34,312	35,436	36,633	39,013
여자	130,136	129,456	133,410	138,773	137,668	137,489	136,352
외국인(기타)	51,006	46,356	49,157	55,008	43,421	44,766	45,908
남자	26,547	23,749	25,160	28,599	20,634	21,078	21,827
여자	24,459	22,607	23,997	26,409	22,787	23,688	24,081

주: 다문화 가구는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임

- 내국인(출생) : 출생현재국적 한국(자녀 또는 한국인 배우자 등)

-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국적회복자 제외)

-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I502&conn_path=12(접속일: 2024.06.04.)

2. 가족 가치관 변화

□ 가족의 정의

- 가족의 다양한 모습이 포착되는 가운데,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여성가족부 「가족 실태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로 확인해 보고자 함.
- 먼저 「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족의 정의”에 대한 각 6개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가족은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3.8%p 감소한 반면,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4.0%p,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3.1%p 증가하여 동거 기반의 가족 관계와 경제적 측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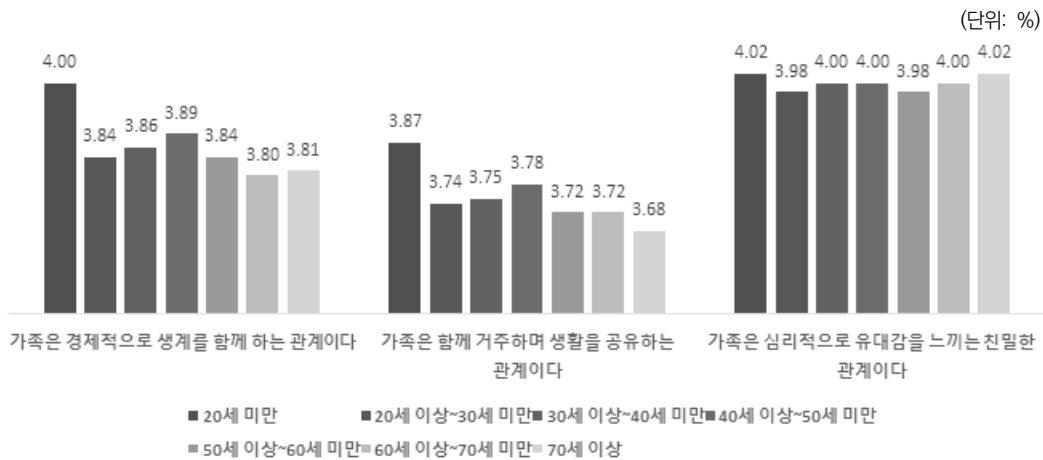
〈표 3〉 가족의 정의

(단위: %, %p)			
구분	2020년	2023년	2020년 대비 변화량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89.0	87.4	-1.6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83.7	83.1	-0.6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68.8	72.8	4.0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64.7	67.8	3.1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82.8	79.0	-3.8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38.7	39.7	1.0

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동의 비율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임.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92 〈표 IV-4〉 인용.

- 가족의 정의 중에서 2020년 대비 2023년 변화량이 큰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와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에 대하여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0세 미만에서 특히 가족은 경제적 생계 관계이며,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의 동의 정도가 높았음. 반면, 가족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동의정도가 가장 높아 연령대별로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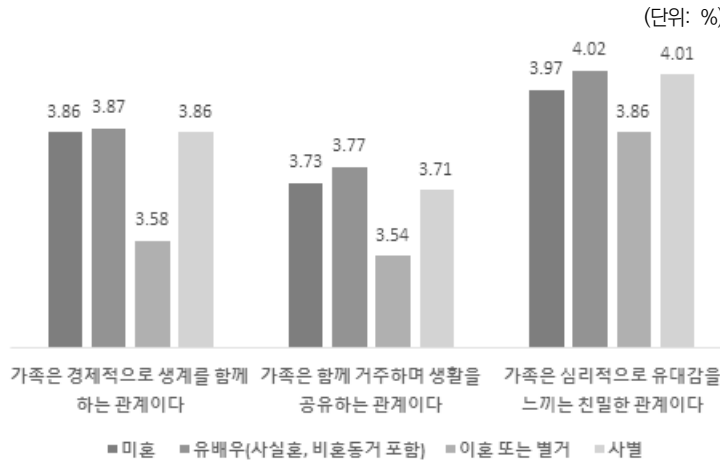


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p.95~96 <표 IV-7> 참조

[그림 9] 연령별 가족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

-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 집단과 이혼 또는 별거 상태 집단의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유배우 집단에서는 가족이 경제적, 공동 생활 공유, 친밀 관계라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인 경우에는 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혼인해체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가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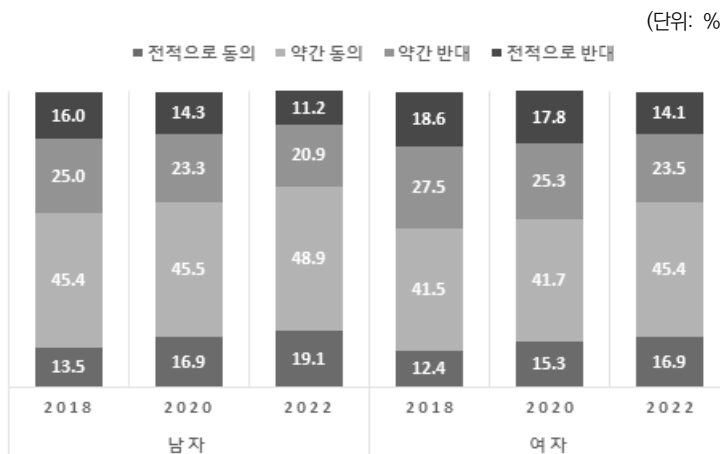
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97 <표 IV-8> 참조

[그림 10] 혼인상태별 가족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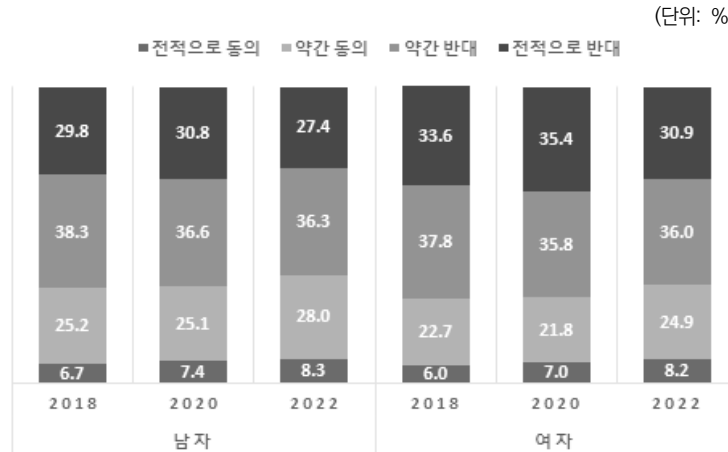
- 다음으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가족 관련 가치관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 보고자 함.
- (비혼 동거) 점차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남자 2018년 13.5%→2022년 19.1%, 여자 2018년 12.4%→2022년 16.9%).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1]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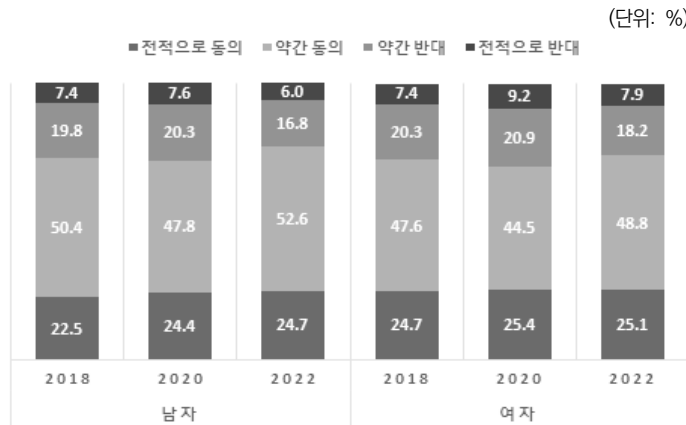
-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2018년에 31.9%가 동의(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하였으나 2022년 36.3%로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28.7%에서 33.1%로 증가하여 남녀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늘어남.
- 이를 통해 점차 결혼 제도로부터 탈피하고 있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2]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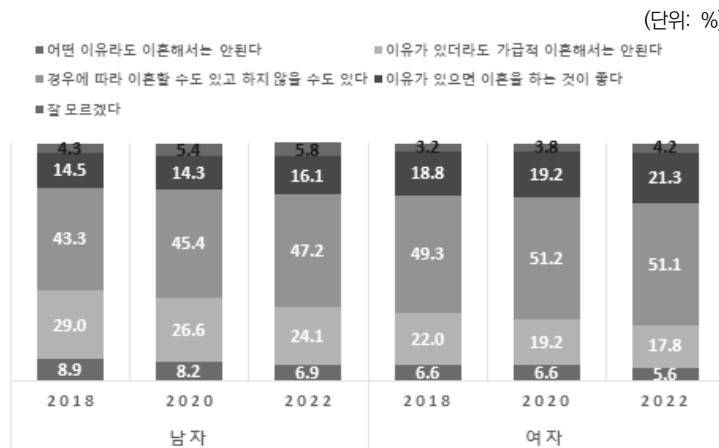
- (외국인과 혼인) 앞서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2018년 동의하는 비율이 72.9%에서 2022년 77.3%로 4.4%p 증가했으며, 여자는 2018년 72.3%, 2022년에는 73.9%가 동의하여 1.6%p 상승하였음. 이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3R&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3] 외국인과의 결혼할 수 있다

-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남자의 경우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2022년 24.1%로 2018년보다 4.9%p 감소했으며, 여자의 경우 2018년 22.0%에서 2022년 17.8%로 4.2%p 감소하였음.
- 이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이혼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의 폭이 여자보다 다소 높아 남녀 모두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F070R&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4] 이혼에 대한 견해